

바울 신학에 기초한 로마서 8:10의 번역과 해설

김광수*

1. 문제 제기

로마서 8장은 성령 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활동에 관한 바울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10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어서 번역과 해석에 난해한 구절이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영이라는 용어로 교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있어서 주체적인 실행자로서 제시된다. 이런 맥락에서 8:10의 올바른 이해는 8장 전체의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로마서 8:10은 NTG²⁷과 GNT⁴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εἰ δὲ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τὸ μὲν σῶμα νεκρὸν διὰ ἁμαρτίαν τὸ δὲ πνεῦμα ζωὴ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한글 번역들이 대부분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강해 설교들이나 해설서들을 보면, 그런 불충분한 번역들의 영향을 받아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혹은 본래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미와는 다르게 제시되어 왔다. 특히 본문의 *σῶμα*와 *πνεῦμα*를 육신과 영혼의 이분법적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전준식은 그의 로마서 강해서에서 8:10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¹⁾ 박정식도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그 구절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지나간다.²⁾ 권성수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그 구절을 애매하게 해석한다. 그는 *σῶμα*를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는 ‘육’으로 이해하고 *πνεῦμα*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영’으로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 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1) 전준식, 『업그레이드 로마서 강해』 (서울: 나침반, 1999).

2) 박정식은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라는 말로 로마서 8:10의 해설을 대신한다. 박정식,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강해 상 (서울: 큐란출판사, 2005), 358.

현재 상태는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패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 그런데 영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³⁾ 이런 내용만으로는 그 구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김서택은 $\sigma\omega\mu\alpha$ 를 인간의 신체는 물론 내면세계를 포함하는 전인의 의미로 제시한 반면, $\pi\nu\epsilon\theta\upsilon\mu\alpha$ 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는 통로인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 전체를 말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육체나 감정은 자기 힘으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중요한 복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통해 공급될 때 죽은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 그 때 영혼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드리게 됩니다.⁴⁾

한국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는 남궁혁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sigma\omega\mu\alpha$ 를 영과 대립된 육체로 이해하며 $\pi\nu\epsilon\theta\upsilon\mu\alpha$ 를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라고 단언한다:

… 여기 ‘몸’이라 한 말은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니, 즉 영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육체를 가리킨 말이다. 사람의 몸은 죄를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가 믿는 그 즉시 완전히 받는 것이 아니다. 믿는 즉시 생명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몸은 오히려 고통과 비애와 각양 시련과 사망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다. … 영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 아니요 사람의 영이다. 영을 몸에 대신해서 쓴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몸은 죽으나 영은 산다. 즉 몸은 사망의 원리를 따라 죽지 아니할 수 없으나 성령과 동거하는 영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영생 불멸하는 것이다.⁵⁾

3) 권성수, 『로마서 강해』(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4), 406.

4) 김서택, 『로마서 강해: 완전한 복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25-326.

5) 소기천 편집, 『한국 최초의 신학자 남궁혁의 로마서 강해』(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53-154.

조갑진은 그의 로마서 해설서에서 $\sigma\omega\mu\alpha$ 는 단순히 신체적 몸만을 의미하지 않고 특별한 환경 속에서 구체화된 인간성을 말한다는 던(J. D. G. Dunn)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라는 구절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⁶⁾

최근 들어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그 구절을 바울 신학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제시되었다. 이필찬은 그의 로마서 해설서에서 바울이 의미했던 것에 비교적 근접하게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몸($\sigma\omega\mu\alpha$)은 바울이 그 구절의 문맥에서 줄곧 말해온 육신($\sigma\alpha\rho\kappa\iota\varsigma$)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즉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구속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영($\pi\nu\epsilon\upsilon\mu\alpha$)도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세 가지로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⁷⁾ 김정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sigma\omega\mu\alpha$ 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 존재 곧 죄의 몸과 사망의 몸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sigma\alpha\rho\kappa\iota\varsigma$ 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반면에 $\pi\nu\epsilon\upsilon\mu\alpha$ 를 칭의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된 인간의 영혼으로 보려는 견해를 비판하고 성령을 가리킨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달한다.⁸⁾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이 구절에 관한 구체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이 구절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바울 신학에 기초하여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그렇게 번역할 때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것을 위하여 필자는 우선 이 구절에 대한 한글 번역들과 영어 번역들의 실례들을 찾아 비교 대조하여 그 번역들에 담긴 기본적 의미와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다음에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들인 $\sigma\omega\mu\alpha$ 와 $\pi\nu\epsilon\upsilon\mu\alpha$ 에 관하여 바울이 사용한 용례들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바울 신학의 정보를 토대로 이 구절의 번역과 그것의 의미를 알아본다.

2. 로마서 8:10의 한글과 영어 번역의 예들과 분석

2.1. 한글 번역의 예들과 분석

이 구절(롬 8:10)에 관한 주요한 한글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6) 조갑진, 『로마서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4), 135-136.

7) 이필찬,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5), 235-236.

8)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40-142.

『개역』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개역개정』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새번역신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영은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공동』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표준』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쉬운성경』(아가페 출판사)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두란노 서원)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한글 번역들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것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된다.

(1) 한글 번역들은 한결같이 인간 존재를 몸과 영 혹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간 존재의 대조적 양상을 표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몸은 죽은 것이지만 혹은 죽는 존재이지만 영(혹은 영혼)은 “산 것이다/살아 있다”라는 것이다.

(2) 소마(σῶμα)는 개인화된 인간의 몸 — 그것이 인간의 신체를 가리키는 의미인지 혹은 전인적 인간을 가리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지만 —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몸’ 혹은 “‘여러분의’ 몸”으로 번역된다. 프뉴마(πνεῦμα) 역시 개인화된 인간의 영(혹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영’ 혹은 “‘여러분의’ 영”으로 번역되었다.

(3) 로마서 8:10하에 나오는 그리스어 ζῶν는 ‘생명’이라는 명사인데,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서는 “산 것이다” 혹은 “살아 있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번역되었

다. 『표준』만이 ζῶνι를 ‘생명’이라는 명사로 번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로 번역하여 ‘영’을 새 생명이 임하는 자리인 인간의 영(혹은 영혼)의 의미로 번역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2.2. 영어 번역의 예들과 분석

이 구절의 영어 번역들 중 대표적인 번역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JV

And if Christ be in you,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RSV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your bodies are dead because of sin, your spirits are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NRSV

But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NIV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NASB

And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NEB

But if Christ is dwelling within you, then although the body is a dead thing because you sinned, yet the spirit is life itself because you have been justified

CSB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영어 번역들은 뚜렷하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1) 몸과 영 혹은 육신과 영혼의 이분법적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번역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σῶμα는 개인화된 인간의 몸 곧 “너희 몸들”(your bodies) 혹은 “너희 몸”(your body)으로 번역된 반면, πνεῦμα는 개인화된 인간의 영 곧 “너희 영들”(your spirits) 혹은 “너희 영”(your spirit)으로 번역되었다. 몸과 영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의 의미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8:10하에 나오는 그리스어 명사 ζῶνῆς “살아 있다”(alive)라는 형용사로 번역되었다. NEB는 ζῶνῆς를 “생명 자체”(life itself)로 번역했지만, 그 구절의 결과적인 의미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인간의 영에 머문다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2) 몸으로서의 인간 존재와 성령의 역할을 나타내는 번역들이다. KJV와 NRSV는 τὸ σῶμα를 문자적 의미인 “그 몸”(the body)으로 번역한 반면, τὸ πνεῦμα는 성령(the Spirit)의 의미로 번역했다. 그리고 ζῶνῆς를 생명(life)이라는 명사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몸으로서의 인간의 존재성과 성령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몸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인하여 아직은 죽음이라는 숙명 아래 있지만, 몸(전인) 안에 계신 성령은 생명이며 나아가 죽을 몸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8:11)는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인간 존재의 숙명성과 그 숙명을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의미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제시하려는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바울 신학의 전체적인 국면에서 몸과 영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 구절의 번역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바울 신학에서 몸(σῶμα)과 영(πνεῦμα)

3.1. 몸(σῶμα)

이 구절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바울의 사상에서 몸과 영에 관한 일반적 용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용례들을 인간학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볼트만이다. 그래서 우선 볼트만의 견해를 중심으로 몸과 영에 관한 바울의 이해를 살펴본다.⁹⁾ 볼트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몸(σῶμα)은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가장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바울은 인간 존재를 그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몸의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 이전에도 몸의 존재로 존재하지만, 죽음 이후의 미래 존재도 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몸의 존재로 존재하며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고전 15:44)과 영광의 몸(빌 3:21)이라고 부른다. 바울이 “죄가 너희 죽을 몸(σώματ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롬 6:12) 혹은 “너희 몸들(σώματα)을 … 산 제물로 드려라”(롬 12:1) 하고 말했을 때, 그 몸은 단순히 몸의 형태(body form) 혹은 신체적 몸을 가리키는

9) 볼트만의 견해를 위하여, R.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 Kendrick Grobel, 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192-203 참조.

것이 아니라, 전인(the whole person)을 가리킨다.¹⁰⁾ 불트만은 바울의 인간관을 인간 존재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 곧 영혼(혹은 영)으로 불리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신체적 몸의 결합으로 보려는 견해에 반대한다.¹¹⁾ 바울은 소마로서의 인간 존재를 나눌 수 없으며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 곧 전인으로 이해했다(롬 12:4이하; 고전 12:12-26).

불트만은 바울 서신의 여러 구절들에 기초하여 몸은 인간의 진정한 자아(예를 들면, 영혼)에게 외부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바로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²⁾ 그래서 인간은 “소마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소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불트만은 여러 구절들에서 소마가 단순히 인칭대명사 ‘나’(문맥에 따라 다른 격의 인칭대명사)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소마의 이러한 특징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 몸에서(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너희 몸들을(너희 자신들을) … 산 제물로 드려라”(롬 12:1).

로마서 6:12-13이 이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ὑμῶν σώματι*)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τὰ μέλη ὑμῶν*)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들)을(*ἑαυτοῦς*) …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τὰ μέλη ὑμῶν*)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너희 지체(들)”(6:12, 13)은, “너희 몸”(6:12)의 동의어적 변형어인데, “너희 자신(들)”(6:13)과 평행한다. 그 다음 구절들(6:13, 16, 19)에서 “너희 자신(들)을 드려라”와 “너희 지체(들)을 드려라”가 동의어로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6:15와 12:27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제시된다:

10) Bultmann, *Theology*, 192; H. 콘젤만,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2), 207.

11)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464. 불트만은 소마가 영혼이나 영에 대조되어 사용된 용례들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만(예를 들어, 살전 5:23; 고전 5:3; 7:34), 그것들은 바울의 핵심적 사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Bultmann, *Theology*, 193). 콘젤만도 바울의 인간론은 이원론적이 아니라고 말한다(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07)

12) 불트만은 “몸으로 대할 때”(고후 10:10), “예수의 흔적들을 몸에 갖고 있다”(갈 6:17),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후 4:10), “몸을 불사른다”(고전 13:3),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전 9:27), “아내가 그녀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고전 7:4), 그리고 “몸을 더럽힌다”(롬 1:24)는 구절들을 제시한다(Bultmann, *Theology*, 193-4).

13) Bultmann, *Theology*, 194; 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07.

고전 6:15 너희 몸(들)(τὰ σώματα ὑμῶν)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12:27 너희(들)(ὑμεῖς)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기서 주어진 “너희 몸(들)”과 ‘너희(들)’은 의미상 차이가 없다. ‘지체들’이라는 단어는 인간 존재의 개별적 역량들을 나타내는데, 이 역량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전체적으로 파악된다. 볼트만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소마는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

볼트만은 나아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행위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일의 주체자로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마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정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소마라는 것이다.¹⁵⁾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맞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에서 소마이다. 소마는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행동을 걸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나’이다.¹⁶⁾ 소마는 성생활의 주체도 되고 객체도 되는 그런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고전 6:15이하; 7:4). 소마로서의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정하거나 혹은 이 조정력을 잃고 외부 세력에 의해 희생될 수도 있다. 이 외부 세력은 적대적인 것이 되어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힘이기도 하다.¹⁷⁾ 인간이 소마라는 것은 인간이 이와 같은 가능성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소마 자체는 어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중립적 존재이다.¹⁸⁾

볼트만은 바울이 소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정력을 상실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 받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마가 죄의 세력과 연대한 사루스(σάρξ)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몸의 행실들”(τὰς πράξεις τοῦ σώματος)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소마를 행위의 주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롬 8:13), 여기서 소마의 행실들은 사루스에 의한 삶과 일치한다(참조. 갈 5:19이하.). 그는 또 “몸의 욕심들”(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αὐτοῦ)이란 어구를 사용하여 사루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데(롬 6:12), 여기서 몸의 욕심들은 다름 아닌 사루스의 욕심들이다(갈 5:16이하, 24 참조. 롬 7:7이하; 13:14).¹⁹⁾ 이런 구절

14) Bultmann, *Theology*, 195.

15) *Ibid.*, 195-196.

16) 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07.

17) Bultmann, *Theology*, 196.

18) *Ibid.*, 199.

들에서 소마는 사룩스에 의해 지배를 받는 ‘나’ 곧 사룩스의 욕심들을 품고 그런 욕심들에서 나오는 행실을 행하는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

바울은 또 소마에 수식어를 붙여 외부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 존재를 표현한다. “죄의 몸”(τὸ σῶμα τῆς ἁμαρτίας)은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롬 6:6). “죽음의 몸”(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θανάτου)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룩스와 연대한 죄의 세력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를 표현한다(롬 7:24). 이 외에도, 바울은 소마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진 존재이고 제한된 존재이며 아래 세계의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낸다: 육의 몸(σῶμα ψυχικόν, 고전 15:44); 낮은 몸(τὸ σῶμα τῆς ταπεινώσεως, 빌 3:21).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몸의 구원이며 부활도 몸의 부활이다.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 고전 15:44) 혹은 “영광의 몸”(τῷ σώματι τῆς δόξης, 빌 3:21)으로의 변형으로, “죽을 몸”(τὰ θνητὰ σώματα, 롬 8:11)을 살리는 것으로, 그리고 “몸의 구속”(τὴν ἀπολύτρωσιν τοῦ σώματος, 롬 8:23)으로 표현한다.²⁰⁾ 이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몸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전인적 개념이다.²¹⁾

3.2. 영(πνεῦμα)

바울의 사상에서 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먼저 바울은 πνεῦμα를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²²⁾ 영은 하나님의 존재 곧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 존재이면서도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데,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이라는 어구로 표현한다(고전 2:11; 롬 8:9 등). 영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루아흐’(רוח)의 그리스어 번역어로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실행자를 가리킨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실현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실현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

19) Ibid., 197.

20) 볼트만은 로마서 8:23에서도 소마는 사룩스에 의해 지배되는, 죄에 빠진 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래서 “몸의 구속”이란 몸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의 속죄 곧 사룩스에서의 속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Bultmann, *Theology*, 201; 참조, 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08).

21) 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07.

22) 바울은 영을 삼위일체적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영(롬 8:14; 고전 2:11; 3:16; 고후 3:3 등), 성령(살전 4:8; 엡 1:12; 4:30), 그리스도의 영(롬 8:9; 갈 4:6; 빌 1:19).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존재로 표현한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πνεῦμα ἁγιοσύνης)으로 묘사한다(롬 1:4). 바울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κύριος)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표현한다: “주는 영이시니”(ὁ δὲ κύριος τὸ πνεῦμα ἐστίν, 고후 3:17). 바울은 나아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살려 주는 영”(πνεῦμα ζωοποιούν)으로 제시한다(고전 15:45).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을 “생명의 영”(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의 활동의 결과로 묘사하는데(롬 8:2), 이 어구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일으키며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에스겔의 예언에 기초한 것이 분명하다(겔 37:5-6, 10-11, 14).²³⁾ 바울은 존재론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 혹은 부활의 주를 영과 동일시하는 것은 물론(롬 1:4; 고후 3:17), 역할 면에서도 영의 활동은 곧 부활의 그리스도 혹은 부활하신 주의 활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롬 8:9) 혹은 “주의 영”(고후 3:17)이라는 어구를 사용한다.²⁴⁾ 이와 같이 바울은 πνεῦμα를 수식어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실행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했다.

다음에 바울은 πνεῦμα를 인간 존재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 요소를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영”(τὸ πνεῦμα τοῦ ἀνθρώπου τὸ ἐν αὐτῷ)으로 묘사하고 그 영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고전 2:11). 그는 또 인간의 영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부분으로 제시한다. 소위 방언은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로서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고전 14:2) 혹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고전 14:14, 15)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소통하는 부분도 인간의 영으로 제시된다(롬 8:16). 바울은 몸과 영 혹은 몸과 혼과 영을 함께 사용하여 인간 존재를 표현하기도 한다(고전 7:34; 살전 5:23). 그렇다고 바울이 인간 존재를 몸과 영 혹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존재의 전체성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다.²⁵⁾ 볼트만은 이런 의미에서 πνεῦμα도 인격을 뜻하고 인칭 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마음’(πνεῦμα)과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단순히 “나와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라는

23) Thomas R. Schreiner, *Roma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415; 페터 슈틀마허, 『로마서 주석』, 장홍길 역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211.

24)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주와 주의 영 사이의 관계는 기독교론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기 어려운 무거운 과제에 속한다. 이 주제에 관한 적절한 논의를 위하여 J. D. G. Dunn, “1 Corinthians 15:45-Last Adam, Life-Giving Spirit”, *The Christ and the Spirit 1*, *Christology* (Edinburg: T & T Clark, 1998), 154-166;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0), 141-148 참조.

25) Bultmann, *Theology*, 205; Ladd, *Theology*, 461.

의미이며(고전 16:18), “내 심령”(τῷ πνεύματί μου)이 편치 못하다”는 말은 “내가 내적으로 안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고후 2:13), “내 영(ἐν τῷ πνεύματί μου)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전인격을 투입한다는 것을 나타내며(롬 1:9),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τῷ πνεύματι ἡμῶν)과 함께 증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게 하고 그것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롬 8:16)을 나타낸다. 그래서 볼트만은 바울이 인간의 영을 말할 때, 인간 안에 있는 더 높은 원리 혹은 어떤 특별한 지적인 혹은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²⁶⁾

4. 로마서 8:10의 번역과 해설

로마서 8:10은 세 구절로 구성된다:

- A: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εἰ δὲ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B: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τὸ μὲν σῶμα νεκρὸν διὰ ἁμαρτίαν)
 A':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τὸ δὲ πνεῦμα ζωὴ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이 세 구절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8:10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이 선호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있다는 것이다(롬 8:1). 바로 앞 구절(8:9)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²⁷⁾ 말하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롬 8:9).²⁸⁾ 역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영 안

26) Bultmann, *Theology*, 206. 콘젤만도 고린도전서 7:34과 5:3에서 몸과 영은 함께 전인을 묘사하지만, 영만으로도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것이다(콘젤만, 『신약성서신학』, 210).

27) ‘거하다’(οἰκέω)는 동사는 임시적인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확립된 관계, 영구적으로 확립된 영향력을 가리킨다(Dunn, *Romans*, 429; 이한수,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2], 631).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임재의 관계를 나타낸다(L.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8], 308).

28) “그리스도의 영”이란 어구도 바울의 일상적 표현은 아니다(참조, 행 16:7; 빌 1:19; 벧전 1:11).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삼위일체적 표현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할 뿐 아니라 점차로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기초하여 성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되며 같은 차원에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영의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Dunn, *Romans*, 430; Morris, *Romans*, 308 참조.

에”(ἐν πνεύματι) 있다고 예외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⁹⁾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전환한다(참조, 갈 2:20).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은 물론 그리스도의 영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서로 밀접한 연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³⁰⁾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올리우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성령의 임재와 활동으로 인식하고 표현했다. 최초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연대성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로 파악되었다. 요한이 성령의 활동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요 7:39) 또 성령의 오심을 부활하신 예수 자신의 오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과 같이(요 14:16-20), 바울도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³¹⁾

둘째 구절(8:10중)의 해석을 좌우하는 핵심은 몸(σῶμα)과 죽은 것(νεκρόν)의 이해에 달려 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통하여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로마서 6장의 의미에서 몸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³²⁾ 그러나, 이 견해에 따라, “죄에 대하여”라는 의미가 되려면 로마서 6:2, 10, 11에서와 같이 ‘여격’(τῇ ἁμαρτίᾳ)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대격(διὰ ἁμαρτίαν)이 사용되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지 “죄로 인하여” 해방을 받은 것은 아니다.³³⁾ 이 구절이 침례와 함께 이미 이루어진 죽음을 가리킨다는 이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라는 새 세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아직은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바울의 교훈을 반영하지 못한다.³⁴⁾

(2) 신자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 죽음을 가리킨다는 견해다.³⁵⁾ 건드리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바로 다음 절(8:11)에 기초하여 여기서 바울은 신체적 몸의 죽음을 생각했다고 주장한다.³⁶⁾ 슈라이너도 바울 신학의

29) 바울은 일반적으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표현한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영 안에 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에 관한 동의어적인 표현이다. 성령이 개인 안에 들어가 통치한다는 것과 신자가 성령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동일한 존재의 상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것이다. 참조, Dunn, *Romans*, 430; Moo, *Romans*, 490.

30) Schreiner, *Romans*, 413-414; Moo, *Romans*, 491; 이한수, 『로마서』, 633.

31) Morris, *Romans*, 308; 이한수, 『로마서』, 634.

32) 이 견해의 지지자들의 목록을 위하여, Schreiner, *Romans*, 414; 이한수, 『로마서』, 635 참조.

33) 이한수, 『로마서』, 635.

34) Dunn, *Romans*, 431; Schreiner, *Romans*, 414.

35) 이 견해의 지지자들의 목록을 위하여, Schreiner, *Romans*, 414.

종말론적 긴장에 기초하여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라는 새 세대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체적 몸은 여전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로서 옛 세대의 일부분인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³⁷⁾ 한글 번역의 “여러분의 몸”이나 영어 번역의 “your body(bodies)”도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몸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몸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이 마주쳐야 하는 신체적 죽음의 형벌을 가리킨다.³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죄 때문에 여전히 신체적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3) 개인의 신체적 몸보다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근본적 존재성을 가리킨다는 견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sigma\omega\mu\alpha$ 는 단순히 신체적 몸을 가리키기보다는 신체적 몸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 이러한 몸의 견해에 기초하여 던은 여기서 몸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를 가리키지 않고 특별한 환경에 조건 지워진 인간을 가리키며 그래서 현대의 여러 번역가들이 “너희 몸(들)”(your body/bodies)로 번역한 것처럼 개별화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소마가 단수 ($\tau\acute{o}$ $\sigma\omega\mu\alpha$)로 사용된 것에 주목하면서 단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죄의 몸”(롬 6:6), “죽음의 몸”(롬 7:24), 그리고 “죽을 몸”(롬 8:11)과 같은 방식의 표현이며 그 몸이 속해 있는 이 세대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있고 몸으로서 모든 인류는 이 세대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³⁹⁾

던은 이러한 견해의 맥락에서 “죽은 것”(νεκρό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죽음의 상태 곧 죄가 살아나고 그 결과로 인류가 처한 죽음의 숙명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 아담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원인을 가리키며 그 둘이 합하여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연대적 관계성을 나타낸다.⁴⁰⁾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세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옛 세대와의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존재로서 죄

36) R. H. Gundry, “‘Soma’ in Biblical Theology with Emphasis on Pauline Anthropology”,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38, Schreiner, *Romans*, 414에서 재인용.

37) Schreiner, *Romans*, 414.

38) Moo, *Romans*, 491.

39) Dunn, *Romans*, 431. 참조, 이한수, 『로마서』, 635. 지슬러도 여기서 몸은 전인적 인간 곧 신체만 아니라 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총체적인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지슬러, 『로마서 주석』, 267).

40) Dunn, *Romans*, 431.

와 연대한 육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몸을 통한 죄의 활동은 여전히 씨름을 해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며(롬 8:13) 또 죽음의 영향력은 몸의 부활까지는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롬 8:11).⁴¹⁾ 죄와 사망은 계속해서 몸에 작용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력들이다. 육신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체험 내에서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실재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절은 몸의 존재로서 죄와 죽음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한 국면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요점은 아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교훈의 핵심은 인간의 그러한 취약한 존재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역할에 있다. 그래서 이 절은 그리스어 μέν을 포함하여 양보절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⁴²⁾

셋째 구절(8:10하)의 해석은 πνεύμα와 ζωής의 해석에 달려 있다. 이 두 단어들의 의미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πνεύμα의 이해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먼저 칭의의 결과로 살아나게 된 인간의 영(혹은 영혼)을 가리킨다는 견해다.⁴³⁾ 한글 번역들은 대부분 이 견해를 따른다: “영은 산 것이다”(『개역』),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공동』), 그리고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표준』). 영어역에서는 “your spirits are alive”(RSV), “your spirit is alive”(NIV), “the spirit is alive”(NASB, NAB) 등이 있다. 위 번역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견해는 그리스어 ζωής를 명사(생명)로 번역하지 않고 “산 것이다/살아 있다(alive)”라는 형용사로 번역하고 있다. 이 견해는 앞 절에 나오는 σώμα를 인간의 신체로 이해하면서 인간 존재의 육적 부분과 영적 부분의 존재성을 이분법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육신은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영(혹은 영혼)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래드(G. E. Ladd)는 여기서 바울은 인간 대 하나님의 영 사이를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 부분과 비육신적 혹은 영적 부분 사이를 대조시킨다고 말한다.⁴⁴⁾ 피츠마이어(J. A. Fitzmyer)도 이 절을 “너희 영은 살아 있다”로 번역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인간의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살리는 은사를 통하여 죽은 인간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⁴⁵⁾

41) Ibid.

42) Moo, *Romans*, 492; Schreiner, *Romans*, 413.

43) 이 견해의 지지자들의 목록에 관하여, Schreiner, *Romans*, 414;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144, 주 297 참조.

44) Ladd, *Theology*, 462.

45) J. A. Fitzmyer, “The Letter to the Romans”, Raymond E. Brown et. al. eds., *The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0), 853.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를 반대하고 *πνεῦμα*를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으로 이해한다.⁴⁶⁾ 그들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πνεῦμα*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어 명사 *ζωή*가 “살아 있다”(alive)라는 형용사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항상 ‘생명’이라는 명사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만일 바울이 “살아 있다”는 형용사의 의미를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런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했지 명사로만 사용되는 *ζωή*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바울이 그 명사를 사용했을 때, 그가 “(인간)의 영이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⁴⁷⁾ 그 대신 바울은 여기서 *πνεῦμα*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실행자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ζωή*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선물인 새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이다(롬 5:21; 6:23). 여기서 바울은 *πνεῦμα*와 *ζωή*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πνεῦμα*를 새 생명의 근원이요 새 존재의 원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⁸⁾

이 구절에서 *πνεῦμα*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은 문맥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로마서 8:10의 근접 문맥(8:1-11)에서 바울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탄식(7:7-25)을 배경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됨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에 관하여 말한다.⁴⁹⁾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주체적 실행자로 제시한다.⁵⁰⁾ 성령은 이 구원 활동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주체적 실행자이다. 먼저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8:1-4).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46) 반대하는 학자들의 목록에 관하여, Schreiner, *Romans*, 415, 주 4 참조.

47)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New York: Harper & Row, 1957), 159; Schreiner, *Romans*, 415. 참조, Morris, *Romans*, 309; 이필찬, 『로마서』, 236.

48) 지슬러는 이 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명이라고 제시하는 것으로 말한다(지슬러, 『로마서 주석』, 268). 던은 여기서 영과 생명이 거의 동의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Dunn, *Romans*, 432).

49) 슈틀마허, 로마서, 204; Schreiner, *Romans*, 395-6; 존 지슬러, 『로마서 주석』, 조갑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54; J. D. G. Dunn,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Books, 1988), 412;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96), 467-470.

50) Cf. 하나님의 의의 실현자로서 성령의 존재와 역할에 관하여, 김광수, “하나님의 의의 실현자 성령: 로마서 8장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21(1998), 77-107. 바울은 여기서 특히 육신(σάρξ)과 영(πνεῦμα) 그리고 육신을 좇는 삶과 영을 좇는 삶을 대비시킨다. 육신과 영은 서로 대조되는 권세 영역 혹은 범위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대립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리킨다. 육신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옛 세대에 속한 존재를 가리키는 반면, 영은 의와 생명의 새 세대에 속한 존재를 가리킨다. 각각의 권세 혹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 안에”(ἐν σαρκί) 혹은 “영 안에”(ἐν πνεύματι) 있다고 묘사된다. 영은 육신의 세력을 극복하게 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하여금 육체를 좇아 사망을 위해 사는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
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한다(8:5-9). 그리고 성령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몸의 부
활에 있어서 그 부활을 이루는 주체자이다(8:10-11).

이 문맥에서 $\piνεῦμα$ 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또 그것은 생명($ζωή$)과 연
결되어 제시된다(8:2, 6, 9, 11). 영은 “생명의 영”(8:2), “하나님의 영/그리스도의
영”(8:9),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8:11)으로 불려진다.
특히 바울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시작과 관련하여 사용
한 “생명의 영”이라는 어구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부활을 다루는 에스겔 37장
에 기초한 것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활동을 가
리킨다.⁵¹⁾ 바울은 에스겔 37장에서 예언된 “생명의 영”(개역 성경에 ‘생기’로 번
역됨)의 활동(겔 37:5-6, 9-10, 14)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며 세우는
구원의 실행자로 이해한다.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ζωή ἐκ νεκρῶν)으로 언급하기도 한다(롬 11:15).⁵²⁾

이 구절의 $\piνεῦμα$ 가 하나님의 영(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몸의
부활을 언급한 다음 절(8:11)과의 연결성 면에서도 분명하다. 로마서 8:11은 8:10
의 재설명과 상세한 설명으로서 종말론적 생명의 근원으로서 성령의 궁극적 역
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⁵³⁾ 로마서 8:10하에 나오는 $\piνεῦμα$ 를 성령으로 간주
하여 직역하면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라는 말이 된다.⁵⁴⁾ 이 말은 하나님
의 의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 활동으로 말미암아 성령
이 새 생명의 근원이며 원동력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⁵⁵⁾ 이것에 기초
하여 로마서 8:11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궁극적인 국면을 요약적으
로 제시한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반
복적으로 제시된다. 바울은 성령을 철저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
시는 종말론적 구원 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한 것을 나타낸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들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한다. “죽을 몸”은 “몸은 죽은 것”(8:10상)이
라는 말과 연결된 것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최종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인간 존

51) 에스겔 37:5-6(LXX)에서 “생명의 영”(πνεῦμα ζωής)이라는 어구가 사용되었다. 슈틀마허, 『로마서』, 213 참조.

52) Schreiner, *Romans*, 415.

53) Schreiner, *Romans*, 415-416; 크랜필드, 『국제비평주석 로마서 II』, 문전섭, 이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4), 176-177; 이필찬, 『로마서』, 237.

54) KJV와 NRSV가 정확하게 이 의미로 번역했다: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55) 이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 곧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활동을 가리킨다(Dunn, *Romans*, 432).

재 곧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하고 생명과 평화의 선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직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성을 가리킨다. ‘살려주다’(ζωοποιέω)라는 동사는 “살아나게 하다”(make alive) 혹은 “생명을 주다”(give life)라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핵심적 국면을 나타낸다.⁵⁶⁾ 예언서들에서 이 동사는 ‘일으키다’라는 동사와 나란히 사용되었다(호 6:2; 겔 37:10; cf. 요 5:21; 엡 2:5-6). “죽을 몸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육신의 잔재를 점차 멸하시고 우리 안에서 천상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지속적인 작업”이라는 칼빈의 견해도 있지만,⁵⁷⁾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궁극적 국면인 최후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⁵⁸⁾ “살릴 것이다”(ζωοποιήσει)라는 미래 시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국면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말할 때(ζωοποιηθήσονται, 고전 15:22)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본질적 국면인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말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πνεῦμα ζωοποιοῦν, 고전 15:45).⁵⁹⁾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연결시킨다. 이렇게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자라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로마서 8:10은 몸(신체)의 죽음과 영(혹은 영혼)의 살아남이라는 인간 존재의 이분법적 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인간 존재 내에서 활동하는 육신과 성령 사이의 종말론적 대립을 다루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⁶⁰⁾ 이러한 의미는 이 구절의 보다 더 큰 문맥(롬 7:7-8:17)에서 바울이

56)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하여 이 동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롬 4:17; 8:11; 고전 15:22, 36, 45). 참조,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153-154.

57)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R. Mackenzie trans. (Edinburgh, 1961), 166, 크랜필드, 『로마서 II』, 178에서 재인용. 고후 3:6(τὸ πνεῦμα ζωοποιεῖ)에서 이 동사는 칼빈이 제시한 그런 의미를 가지며 그 문맥에서 성령의 역할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후 3:18).

58) Dunn, *Romans*, 432; Moo, *Romans*, 493; Schreiner, *Romans*, 416; 지슬러, 『로마서 주석』, 269; Morris, *Romans*, 310; 크랜필드, 『로마서 II』, 178.

59) 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어구가 적어도 신령한 몸 개념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산 영”(ψυχὴν ζῶσαν)으로서의 아담은 프쉬케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결정되는 몸의 존재인 반면, 부활의 그리스도는 프뉴마에 의해 활성화되고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말한다. Dunn, “1 Corinthians 15:45”, 158.

60) 슈톨마허도 바울의 표현방식은 영원한 영에 비해 없어질 육신을 낮게 보는 인간존재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죄와 의를 대립시키는 종말론적 대조의 국면을 나타낸다고 말한다(슈톨마

강조하는 국면이다.⁶¹⁾ 이 문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실행자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성령의 씨름이라는 종말론적 긴장이 시작된 것을 제시한다. 육신과 성령은 양립할 수 없이 서로의 소욕을 거스르는 대립적인 세력이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세력과 그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는 죄의 세력과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며 신령한 몸의 존재가 된 것도 아니다.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과 그것의 욕심들에 굴복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을 통해 활동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씨름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8:12-13). 바울은 새 세대의 원동력인 성령이 육신의 세력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죽을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8:10-11).

5. 결론

로마서 8:10의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서는 $\sigma\omega\mu\alpha$ 와 $\pi\nu\epsilon\upsilon\mu\alpha$ 를 인간 존재의 이분법적 요소들 곧 신체적 부분과 영적 부분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번역되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혹은 생명을 얻습니다”로 번역되었다. 영어 번역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적 대조를 반영하는 번역도 있는 반면, 일부 번역들(KJV와 NRSV)에서는 몸의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제한성과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종말론적 활동을 대조시키는 의미로 번역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번역이 어떤 점에서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를 전달하는가를 고찰했다.

우선 바울의 사상에서 몸과 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관하여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볼트만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바울에게 있어서 $\sigma\omega\mu\alpha$ 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간은 소마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소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마는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소마로서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정하거나 혹은 이 조정력을 잃고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바울은 “몸의 행실들” 혹은

허, 『로마서 주석』, 207-208).

61) J. D. G. Dunn, 『바울 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642-648 참조.

“몸의 욕심들”이란 용어들을 사용하여 죄와 연대한 *σάρξ*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존재를 표현했다. 바울은 또 소마에 수식어를 붙여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시적이고 육신의 존재로서 인간의 제한성과 연약성을 표현했다: 죄의 몸, 죽음의 몸, 죽을 몸, 육의 몸, 그리고 낮은 몸.

바울 사상에서 *πνεῦμα*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영은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격적이며 권능의 존재인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실현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존재로 표현한다: 성결의 영, 생명의 영, 그리고 살려주는 영. 바울은 존재론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 혹은 부활의 주를 영과 동일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 혹은 주의 영이라는 어구들을 사용하여 성령의 활동을 그리스도의 활동 혹은 주의 활동과 연결시킨다. 바울은 또 *πνεῦμα*를 인간 존재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πνεῦμα*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요소를 나타내기도 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울은 인간을 늘 전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πνεῦμα*도 때때로 인격을 뜻하고 인칭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로마서 8:10은 세 구절로 구성된다. 첫째 구절(8:10상)의 중심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데 있다. 앞 구절(8:9)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내주하심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에 있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밀접한 연대성을 가리킨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구절(8:10중)의 해석은 *σῶμα*와 *νεκρόν*(죽은)의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절의 해석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시에 이루어진 죄에 대한 죽음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하여 종국적으로 맞이해야 할 신체적 죽음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개인화된 신체적 몸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앞에서 언급된 몸에 관한 바울의 일반적 용례에 따라, 셋째 견해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존재로서 비록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것은 아니다. 육신을 통한 죄의 활동은 여전히 씨름을 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또 죽음의 통치는 몸의 부활까지는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한 국면을 나타낸다.

셋째 구절(8:10하)의 해석은 $\piνεϋμα$ 과 $\zetaωή$ 의 해석에 달려 있다. $\piνεϋμα$ 의 해석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살아나게 된 인간의 영(혹은 영혼)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그러면 이 절은 “영은 산 것이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로 번역된다. 이 견해는 앞 절에 나오는 $σωμα$ 와 연결하여 인간 존재의 이분법적 대조를 나타낸다. 인간의 육신은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piνεϋμα$ 를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러면 이 절은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로 번역된다. 이 견해는 $\piνεϋμα$ 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주체적 실행자로 제시한다.

이 구절에서 $\piνεϋμα$ 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은 문맥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로마서 8:10의 근접 문맥인 8:1-11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주체적 실행자요 새 생명의 근원으로 제시된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육신의 세력을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종국적으로는 죽을 몸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다음 구절(8:11)에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실행자로 제시된다. 이것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제시한 것(고전 15:45)과도 연결된다.

로마서 8:1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 있다는 존재론적 갈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말론적 긴장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은 죄와 씨름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의 권세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동하시는 성령은 새 생명의 근원이며 원동력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우리 죽을 몸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주요어>(Keyword)

몸, 죄, 영, 의, 생명.

body, sin, Spirit/spirit, righteousness, life.

<참고문헌>

- 김광수, “하나님의 의의 실현자 성령: 로마서 8장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21 (1998), 77-107.
-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박정식,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강해 상, 서울: 쿰란출판사, 2005.
- 권성수, 『로마서 강해』,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4.
- 김서택, 『로마서 강해: 완전한 복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소기천 편집, 『한국 최초의 신학자 남궁혁의 로마서 강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이필찬,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5.
- 이한수,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2.
- 전준식, 『업그레이드 로마서 강해』, 서울: 나침반, 1999.
- 조갑진, 『로마서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4.
- 지슬러, 존, 『로마서 주석』, 조갑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슈틀마허, 페터, 『로마서 주석』, 장홍길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콘젤만, H, 『신약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크랜필드, C. E. B., 『국제비평주석 로마서 II』, 문전섭, 이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4.
- Barrett, C. K.,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New York: Harper & Row, 1957.
- Bultmann, R.,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 Grobel, K., 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 Calvin, J.,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Mackenzie, R., tr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1.
- Dunn, J. D. G., “1 Corinthians 15:45-Last Adam, Life-Giving Spirit”, Dunn, J. D. G., ed., *The Christ and the Spirit*, Edinburg: T & T Clack, 1998, 154-166.
- Dunn, J. D. G., *Christology in the Mak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0.
- Dunn, J. D. G.,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Books, 1988.
- Dunn, J. D. G., 『바울 신학』, 박문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Fitzmyer, J. A., “The Letter to the Romans”, Raymond E. Brown et. al. eds., *The*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0, 830-868.

Gundry, R. H., “‘Soma’ in Biblical Theology with Emphasis on Pauline Anthropology”,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2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Ladd, G. E. 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96.

Morris, L.,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8.

Schreiner, T. R., *Roma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Abstra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Romans 8:10
Based on the Pauline Theology**

Prof. Kwang Soo Kim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In most of the Korea translations of Romans 8:10 the Greek words *soma* and *pneuma* are translated to contrast the physical body and the spiritual portion of the human existence. Such dichotomy of the human existence is reflected in some of English translations: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NIV). In some translations such as KJV and NRSV they are translated to reflect both the limitation of Christians as a somatic existence and the eschatological activity of the Holy Spirit: “But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in what senses the former translation is to deliver the meaning that Paul had intended.

In the anthropological thoughts of Paul *soma* is the most comprehensive concept to indicate the undivided character of human existence as the whole person. The word *soma* is used to describe the real self of human beings, so that we can say not that a human being has a *soma* but that he/she is a *soma*. The word *pneuma* is used to express the existence and activity of God. Paul especially had called Jesus Christ who had come to the world to realize the eschatological salvation of God as the existence of Spirit: Spirit of holiness, Spirit of life, and the life-giving Spirit. Paul also used the word *pneuma* to indicate the inner factor of the human existence.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clause of Romans 8:10 is that Christ dwells in those who have the Spirit of Christ. It indicat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 and the Spirit in the saving act of God. The translation of the second clause is dependent on the understanding of *σῶμα* and *νεκρόν*. The best option is that it does not describe the individualized physical body but the Christian existence which is, though in the Spirit, still to encounter the power of death. The translation of third clause is dependent on the understanding of *πνεῦμα* and *ζωή*. That *πνεῦμα* indicates the Holy Spirit is well explained based on the context. The Spirit is life and the source of the life-giving act of God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which has been represented in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